

“생활기록부 새롭게 달라집니다”

전북교육청, 관리자·업무담당자 연수 개최 변경·주의사항 안내로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

전북도교육청은 18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관리자 연수가, 오후 2시부터는 133개교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됐다.

중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생활기록부 항목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을 관리자 및 담당 교사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올바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통해 신뢰도와 공정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2·3학년으로 확대되는 이번 학생부 개선사항은 인적사항의 부모정보, 진로희망사항 항목 등

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중·고등학교 수상경력도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하고,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역시 기재는 하되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며 자율 동아리나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학교 등 기재범위가 변경됐다.

이와 함께 1~3학년 공통 적용사항으로는 무단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조정됐고,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3,000자에서 1,700자

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기록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 교사의 학생부 기재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 학생부 실무현장실무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담백하고 순수한 시의 언어로 다양한 감정과 일상 표현

안정근 교수, ‘詩’를 읽고’ 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한 시(詩)와 / 씨앗보다 말랑말랑한 것이 / 씨앗보다 정겨운 것이 / 따뜻한 온기에 씩씩 트더니 / 어느 날 애써 다독거린 사람을 / 아직은 설익은 그리움을 뿜어낸다 /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안정



근 ‘詩’ 전문 담백하고 순수한 시의 언어로 사람의 다양한 감정과 일상을 표현하고 있는 시인 안정근(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의 시집 ‘詩’를 읽고(문예원)가 나왔다.

2015년 처녀 시집이자 세종도서에서 선정된 ‘주머니에 별 하나’와 2017년 ‘별의 딸’에 이은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그간의 시집에서 오랫동안 묵혀둔 시의 조각들을 세상에 내보이고, 서정의 시 세계를 더욱 포괄하게 드러낸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서 자신의 시적 세계의 시작을 정갈한 시

어로 되짚었다. 그 시작은 시인은 작품에서 스스로 ‘詩’이라 칭했다.

글썩이의 말에서 시인은 유년의 긴 시절 같은 방을 썼던 형으로부터 ‘詩’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 한다. 어느 날 문득 시집을 내고, 유년의 긴 시절 형인 안이성 시인이 방에 심어 놓은 시앗이 스스로의 마음에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러한 시앗의 태동과 울음, 열매 등이 모두 75편의 시에 투영돼 있다. 그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 정갈한 시어로 표현돼 있다.

안병호 시인(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역시 해설을 통해 안 시인의 시를 ‘술술 읽히는 순수 서정의 담백한 미학’이라 표현하고 있다.

안병호 교수는 “안 시인의 시는 쉽고, 빠르고, 경쾌하며,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다. 그의 시는 해독의 긴장감이 필요 없다”며 “그저 삶의 저간에서 느끼는 조출하고 소박한 상념들을 간단하고 씩씩한 어조로 풀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인 안정근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유학해 1987년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농기센터 - 원광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원광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커플링사업단과 상생발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와 원광대 농업생명과학 커플링사업단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성공모델 창출과 농생명 기술증진을 위한 협업 및 지역인재 발굴, 현장실습 및 직업 교육,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과계열

전공학생들의 취업준비에 필요한 사전 정보 습득을 위해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농업기술센터 신성룡 소장은 “농업 창업 준비 및 관련정보 제공, 지역대학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커플링사업단 단장인 안병철 교수는 “농업에 정착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18일 원광대 커플링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고교 교육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고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맞는 교육과정 다양화, 미

래인재 양성 학교선택 프로그램,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체별로 컨설팅하기 위함이다.

18~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 일반고 95교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현주 교사(남원 서진여고)를 비롯해 이연호 교감(합열고), 라구한 교감(전주고), 오경택 교사(전주성심여고), 이 등 교사(장수고), 이인하 교감(군산중) 등 6명이 컨설턴트로 나서 권역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후 문제가 있는 내용은 수정 보완 후 운영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역별 해당학교 업무담당교사와 컨설턴트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권역별 업무담당교사들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며 “상호 교류를 통해 단위학교별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을 전체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익산 왕궁초등학교, 왕궁마을 독립만세운동 재현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왕궁초등학교(교장 김복희)는 18일 나라를 사랑하는 선열들의 마음과 독립선언에 갖는 평화와 인류애를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울 수 있도록 왕궁마을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다.

1919년 3월 1일 민족33인과 학생, 그리고 민중이 함께 참여하여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왕궁면에서도 도순리에서 김광덕, 송종석 두 분이 주축되어 3월 18일과 28일 장날을 기하여 금마에 사는 동지들과 거사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였고 약속된 장날 오후 1시 장 한복판에서 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국가보훈처 발제)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학교-마을 협력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왕궁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특화하여 사계절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월 16~19일은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라요 라는 슬로건으로 119 안전체험, 과학캠프, 인공교육(독립선언서에 담긴 소중한 가치 찾기), 장애이해교육, 왕궁마을 독립만세운동, 왕궁가족한마당 축제 등 봄 행복학교를 운영했다.

특히 왕궁마을 독립만세운동 재현은 아이들이 마을의 토대위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을에서 고심하여 기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근의 왕궁중학교, 왕궁원광어린이집, 왕궁면사무소, 왕궁파출소, 왕궁농협, 왕궁우체국,

왕궁현악단, 신홍경로당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참여를 이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 및 학부모, 유관기관 직원들이 함께 독립군가와 애국가에 맞춰 일제된 동작으로 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독립선언서의 정신이 담긴 공약집장과 독립만세 3창으로 왕궁 마을 전체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다.

왕궁초등학교 박양미 학부모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3·1운동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마을 어른들과 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며, 나라사랑을 실천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를 이끌 올바른 인재를 기우는 왕궁교육을 교육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왕궁초등학교 어린이회장 황유란 학생은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쓰신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알게 되었고, 마을에 계신 유치원동생들부터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만세를 불렀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이날 공복회 전북지부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왕궁주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태극기를 100본을 기증하여 나라사랑의 뜻을 깊게 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야생동물센터 체험’ 참가 어린이 모집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 교수)가 센터 개소 10주년 및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와 야생동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야생동물 센터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참가 어린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 인원은 모두 20명으로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전북대 홈페이지(<http://www.v.jnu.ac.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팩스(063-850-0976)나 이메일(jnu3081@jnu.ac.kr)로 보내면 된다.

5월 5일 어린이날 전북대 익산 특성화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서는 참가 어린이가 직접 수의사가 되어 진료실과 수술실, 약제실 등을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새집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부상당한 야생동물 사진과 포획 도구 등을 전시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아파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라북도 아름다운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THE 13th KOREAN YOUTH PARA GAMES
2019.5.14.~17.(4일간)
전라북도 일원(익산시 등 6개 시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48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2019.5.25.~28.(4일간)
전라북도 일원(익산시 등 14개 시군)

JEONBUK 2019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라북도, 전북도교육청,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